

보도일시 (인터넷) 2023. 7. 5.(수) 11:00,
(지면) 2023. 7. 6.(목) 조간

배포 2023. 7. 5.(수) 06:00

“안전한 바다, 같이 만들어주세요!” 포스터·영상 등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

- 7. 10.(월)~8. 25.(금) 공모, 우수작 21점에 상장과 총상금 2,140만 원 수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해양 안전의식을 높여 해양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7월 10일(월)부터 8월 25일(금)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공모전의 공모부문과 대상, 평가방법 등을 대폭 개편하였다. 먼저, 공모 부문은 ‘포스터’와 ‘유튜브 짧은영상(숏폼)’으로 간소화하고, 포스터 부문의 공모대상을 일반인과 초등학생 이하로 구분하였다. 또한, ‘대국민심사’* 과정을 신설하고, 평가항목에 ‘활용성’을 추가하여 국민 참여 기회와 수상작의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 국민생각함(<http://www.epeople.go.kr>) 활용 예정(9월)

포스터부문은 계절별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된 안전 이미지의 포스터 4컷을 공모하고, 유튜브 짧은영상(숏폼)부문은 자유형식으로 20~30초 분량의 영상을 공모한다. 해양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안전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9월에 ‘대국민심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 등을 통해 우수작 21점을 최종 선정하고, 연말에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10월경 해양안전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 수상작품집으로도 제작되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된다. 또한, ‘2024년 해양안전 홍보물’로 제작하여 해양안전의 날 캠페인 등 행사와 해양수산부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응모방법 및 유의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성용 (044-200-5810)
		담당자	사무관	이윤희 (044-200-5829)
		담당자	주무관	전유진 (044-200-5814)
<협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안전실	책임자	실 장	박호상 (044-330-2340)
		담당자	과 장	강유진 (044-330-2344)



참 고

2023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안)

안전한 바다,
같이 만들어 주세요!

2023
**해양
안전
콘텐츠
공모전**
2023.7.10. (월) ~ 8.25. (금)

공모분야 포스터 4컷 (계절별 해양사고예방 안전 이미지 주제어 포함),
유튜브 숏폼 (해양안전 주제 자유형식, 20~30초)

참가자격 일반인, 학생 등 모든 국민 대상*
*포스터 4컷에 한해 대상을 '일반인'과 '초등학생 이하'로 구분하여 참가

수상발표 2023년 10월 초(일정 및 장소 추후 확정)

접수방법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한 접수등록

포스터 4컷
불 : 인개중물사고 예방
여름 : 구명조끼 착용
가을 : 음주운행 금지
겨울 : 화재사고 예방

※ 공모분야 및 심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참조

구분	포스터 4컷						유튜브 숏폼		
	일반인			초등학생 이하			시상내역	인원	상금
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1	400만원	해양수산부장관상	1	400만원	해양수산부장관상 및 상금	1	100만원
최우수상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	1	200만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	1	200만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	1	50만원
우수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	2	100만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	2	100만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	2	30만원
장려상	한국선급회장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상, 한국해양재단이사장상	3	50만원	한국선급회장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상, 한국해양재단이사장상	3	50만원	한국선급회장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상, 한국해양재단이사장상	3	10만원

※ 수상 후보자는 저작권 관련 검증을 실시하며, 부정행위 확인 시 상금 무상 환수 등 조치 예정